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賢祖實錄探險

성리학과 예학에 뛰어난 좌의정 문경공의 9대손 탄촌공

권오신
좌윤공파종회장: 칼럼니스트

당대의 학자이자 정치가로 이름을 날린 소론의 영수 명재(明齋) 윤증(尹拯)이 "고인유천리명가자古人有千里命駕者 어금於今 역유지亦有之/ 옛적에 스승을 찾아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말에 멍에를 얹은 사람이 있다 했거늘/ 오늘 또한 그런 사람이 있었구려." "옛사람이 천리길을 걸어 명가(命駕, 방문의 높임말)한 바 있다 하더니 지금이 그와 같은 일이 있도다."하고 조석(朝夕)을 함께 하는 수제자로 삼았다. 신사년(辛巳年, 1701) 봄이었다.

탄촌공(灘村公, 휘諱 구絿)은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4 소론의 영수)으로부터 사자서(四子書,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및 주자학(朱子學, 송나라 주돈이. 정명도. 정이천에서 비롯된 학문, 주자에 이르러 집대성한 성리학)의 심지를 전수 받았다.

당시 관동어사(關東御史) 오공(吳公) 명준(命俊)이 임금에게 올린 장계를 살펴보면 예학에서 당대의 최고 학인이란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권모는 책 상자를 지고 다니며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학문을 탐구하는 길을 찾았다. 자신의 몸을 신칙(申飭, 단단히 조심함)하면서 학업을 닦고 상례(喪禮)엔 삼가하고 조심했다. 오복(五服, 참죄 재최 대공 소공 시마 등 다섯 가지 상복)의 예제에 있어서 의난(疑難, 의심스럽거나 어려운 부분) 할 곳을 찾아내고 글을 지어 기록으로 남겼다. 선생은 그 감춤이 깊고 스스로 맑은 경지에 이르렀으나 남이 알아주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행의를 닦고 학문에 힘쓰는 실체가 진실로 영외(嶺外, 산봉우리, 잇달아 뻗어있는 산줄기 준령)와 같은 참다운 선비이다.〉라고 극찬했었다.

당대의 문인 이만암(李晩庵, 이상진)은 〈권모는 호걸(豪傑)한 선비이니 반드시 풍악(楓嶽, 금강산의 또 다른 애칭)에 가득한 방박(磅礴,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널리 덮이다)한 정기가 가득하다.〉고 예찬했었다.

1. 탄촌공(灘村公)의 행장(行狀)

기사사화(己巳士禍, 1689)가 일어나던 해였다. 곤궁(坤宮, 왕후)이 사저(私邸)로 폐출되고 당대의 학자요 문신이신 우계(牛溪) 성혼과 율곡이 문묘(文廟, 공자를 모신 사당)에서 출향(黜享) 되자 바로 우상강개(憂傷慷慨,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의기가 끓어오름), 강정소설(江亭小說)을 지어 백성들이 읽도록 했다.

탄촌공은 과거 공부를 놓는 대신 예학 공부에 더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경진년(庚辰年, 1700) 봄 충청도 노성(魯城, 지금의 논산)에서 한양까지 걸어 당대의 예학자이자 후일 이조판서에 오른 최명곡(崔鳴谷, 최석정)을 만나 벌인 예론 의의점(擬議點)에 대한 논쟁은 당시로서는 사림의 최대 화두가 됐다.

둘은 한자리에서 점심을 걸러 가면서 거침없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주자가례의 한 부분을 두고 명곡 선생이 잘못된 견해를 거듭 고집하는 것을 보고 탄촌공은 본문을 들어 하루가 넘게 쟁변을 벌였다. 명곡은 자신이 잘못 고증했음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사실을 시인하고 탄촌공의 학문적 깊이에 탄복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그로부터 서로 존경하고 예학을 논하는 친구가 됐다.

2. 농암(農岩) 김창협(金昌協)에게 보내는 서한문(書翰文)

〈농암農岩 김창협金昌協(1651~1708) 조선중기의 학자, 성균관 대사성을 지냈으나 서인의 중진이었던 아버지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 기사환국(숙종 15년 1689) 때 사사되자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면서 성리학 연구에 몰두한 당대의 문장가이며 서예에도 능해 그의 글씨가 많이 전해진다. 같은 길을 걷는 탄촌공과는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다.〉

"도체(道體, 道를 닦는 사람. 한문 편지에서 상대를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와 신상(神相, 덕이 높은 분의 얼굴색)이 어떠하신지요. 집사(執事, 老兄은 더되고 존장은 못되는 상대를 높여 부르는 말)께서 구(絿, 농암)는 연전 일찍이 숙석(宿昔, 머무는 집)부터 깊은 사이가 아니었는데도 석원에서 진배(眞拜)하였을 때에 객으로 여기지 않고 깊은 서가(書架)에 가득한 제술(製述, 저술한 책 등)들을 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향음주의(鄕飮酒義)에 이르러서는 삼대(三代, 고대 중국의 하.은.주 시대를 일컫는 말)

이후로는 행해진바 없는 성례인데도 구(絿)가 재현해보고 싶어 하자 사람을 모으고 의식을 살려 읍(揖, 상대에게 최대의 예를 표하는 중국 인사법)하고 사양하고 술잔과 주안상을 받고 드리는 절목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히 몽매하고 삭거(索居, 궁벽한 곳에 홀로 떨어져 삶)하면서 성대한 가르침을 욕되게 하면서 새로이 터득하는 것이 없이 옛 모습 그대로이니 구(絿)는 척연(惕然, 두렵고 걱정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중략〉

가만히 생각건대 군자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이 점을 긍념(矜念)하사 아름다움을 이루게 할 성심(盛心)을 더욱 도타이 하시어 때로 경계하고 깨우치는 덕음(德音)을 거듭하여 노둔(魯鈍)한 이 몸을 책려하시어 소인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깊이 소기하는 바이올시다." 기묘년(己卯年, 1699) 섣달.

3. 연경(燕京) 사행(使行)을 떠나는 이조판서 최명곡(崔明谷)에게 보내는 전송 글

금상(今上, 숙종)이 즉위 23년 정축년(1697) 봄 우의정을 수행, 연경(燕京, 지금의 북경)으로 떠나는 존와(存窩, 이조판서 최명곡崔明谷의 아호)는 사명(使命, 사신이나 사절이 임금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받들고 연경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번 사행(使行)을 두고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나 안동 권구는 그렇지가 않다. 공(公)은 비상한 사람이다. 문장과 덕업이 능히 그 집안의 명예를 잇고 그 아름다운 언사는 족히 천하 사방 어디에 가서도 전대(專對)시 모자람이 없을 것이요.

그 충신(忠信)으로 족히 외이(外夷, 오랑캐 청나라 조정)를 감동시킬 것이기 때문에 예간(睿簡, 깊고 밝은 선택 즉 임금 숙종의 현명한 선택)을 받아 사신의 명을 띠고 가는 바가 거기에 있으니〈중략〉 내 다시 무엇을 근심할 것이겠는가. 설기(說記)를 하여 전별하는 바이다.

탄촌공(灘村公, 휘諱 구絿)은 효종 9년(1658, 무술戊戌) 12월 28일에 태어나서 영조(英祖) 6년(1730)에 73살 때 수(壽)를 놓았다. 27대손. 좌의정 문경공의 9대손이니 정랑(正郎) 칠림(七臨)의 8대손, 현감 침(琛)의 7대손, 군수공(郡守公, 휘諱 지상志常)의 6대손, 장사랑(휘諱 백伯)의 5대손, 집의공(執義公 휘諱 충忠)의 고손, 둔암공(遯菴公 휘諱 세인世仁)의 현손이 된다.

호조참의공(戶曹參議公, 증贈, 휘諱 응기應箕)의 증손, 호조참판공(戶曹參判公, 증직, 휘諱 김佶)의 손자, 그리고 호군(護軍, 조선 오위五衛의 정사품직 무관 벼슬) 임도공(任度公)의 셋째 아들이었으나 후사를 두지 못했던 중부(仲父, 둘째아버지 휘諱 임정任正/호군공護軍公)의 양자가 됐다.

탄촌공(灘村公 휘諱 구絿)은 충령(沖齡, 어린나이)때부터 유년 천재로 이름이 났다.

7, 8살에 시(詩)를 짓고 눈길이 한번 간 글은 외워버렸다. 15살엔〈동현유사東賢遺事〉을 읽고 가언선행(嘉言善行)을 발췌해서 실천했었다고 한다.

24살이었던 숙종 7년(1681, 신유辛酉) 우재(迂齋) 조지겸(趙持謙)의 문하에서 수학하다 44살 되던 해(숙종 27년 1701, 신사辛巳)엔 당대의 학자이자 정치가로 이름을 날린 명재 윤증의 문하생이 됐다.

당시 명재는 〈고인유천리명가자古人有千里命駕者 어금於今 역유지亦有之 옛적에 스승을 찾아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말에 멍에를 얹은 사람이 있다 했거늘/ 오늘 또한 그런 사람이 있었구려.〉라고 감탄하고 조석(朝夕)으로 함께 지내면서 학문을 가르쳤다고 한다.

명재로부터 수학한 몇 년 만에 성리학의 체계를 완성하고 예학에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학문적 경지에 올랐다.

이같은 학재(學才, 학문에 대한 재능)가 한양까지 알려져 전력부위(展力副尉) 감역(監役)에 제수 되었으나 벼슬길엔 나가지 않고 저술에만 몰두해서 〈오복편람五服便覽, 다섯 가지 상복〉을 펴냈으며 이어 〈예요오자고禮要誤字考〉 〈상복편고喪服篇考〉 〈여역문변체록麗澤問辨僣錄〉 〈노문일록魯門日錄〉 등 자료 분량이 엄청난 책 4권을 잇달아 출간했다

문집(文集) 탄촌집(灘村集)은 이후에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영조 6년(1730, 庚戌) 12월 6일에 세상을 하직하시니 74살. 강원도 고성(古城) 수동(水洞)리 청교산(靑橋山) 선영에 손좌(巽坐, 동남쪽을 등지고 앉은 자리)에 묘소를 썼다. 윗대부터 강원도 고성(古城) 우거(寓居) 사유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지만 문경공(文景公, 휘諱 진軫, 세종 때 좌의정)의 후손들이 단종사화 때 문경공이 글공부를 시킨 족질(族姪) 죽림공(단종의 이모부, 문종의 동서)이 화를 입자 김천, 원주, 영양 연일 등지에서 숨어 살았던 원인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초배(初配)는 삭녕최씨(朔寧崔氏, 부父 상융尙融), 재배再配는 청주경씨(淸州慶氏 부父 진회眞會)로 합폄(合窆)이 됐다. 맏아들 정수와(靜修窩, 휘諱 덕성德誠)공과 영조(英祖) 39년(1763)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及第) 즉시 홍문관(弘文館) 정언(正言)을 지내신 덕훈(德訓) 공이 있다. 두 따님은 황수. 이석오(李錫五) 공에게 출가했다.

〈자료출처: 안동권씨문경공세보安東權氏文景公世譜, 영가언행록永嘉言行錄)

제사비요(祭祀備要)

성균관 전례사典禮師 능소能素 권정택 權貞澤

제사 지내는 순서

제사의 진행순서와 예법은 가문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 내용을 참고하여 가문과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순서와 예법에 맞게 제사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1.영신(迎神)

먼저 대문을 열어 놓는다. 제상의 뒤쪽(북쪽)에 병풍을 치고 제상 위에 제수를 진설한다. 지방을 써 붙이고 제사의 준비를 마친다. 예전에는, 출주(出主)라 하여 사당에서 신주(神主)를 모셔 내오는 의식이 있었다.

2.분향강신(焚香降神)

영혼의 강림을 청하는 의식이다. 제주(祭主)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향로에 향을 피운다. 집사(執事)가 제상에서 잔을 들어 제주에게 건네주고 잔에 술을 조금 따른다. 제주는 두 손으로 잔을 들고 향불 위에서 세 번 돌린 다음, 모사 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붓는다. 빈 잔을 집사에게 다시 건너 주고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집사는 빈 잔을 제자리에 놓는다.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모사에 술을 따르는 것은 땅 아래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3.참신(參神)

고인의 신위에 인사하는 절차로서 참사자(參祀者) 모두 신위를 향하여 두 번 절한다. 신주를 모시고 올리는 제사일 때는 참신을 먼저 하고 지방을 모셨을 때는 강신을 먼저 한다. 미리 제 찬을 진설하지 않고 참신 뒤에 진찬(進饌)이라 하여 제찬을 올리기도 한다. 진찬 때는 주인이 육(肉, 고기) 어(魚, 생선) 갱(羹, 국)을 올리고 주부가 면(麵, 국수) 편(餠, 떡) 메(飯, 밥)를 올린다.

4.초헌(初獻)

제주가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제주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분향한다. 집사가 술잔을 내려 제주에게 주고 술을 가득 붓는다. 제주는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 향불 위에 세 번 돌리고 모사 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부은 다음 두 손으로 받들어 집사에게 준다. 집사는 잔을 받아서 메 그릇과 갱 그릇 사이의 앞쪽에 놓고 제물 위에 젓가락을 놓는다. 제주는 두 번 절한다. 잔은 합설(合設, 고인의 내외분을 함께 모시는 것)이면 고위(考位, 남자) 앞에 먼저 올리고 비위(여자) 앞에 올린다. 집안에 따라서는 술을 올린 뒤 메 그릇의 뚜껑을 연다.

5.독축(讀祝)

축문 읽는 것을 독축이라 한다. 초헌이 끝나고 참사자가 모두 꿇어앉으면 축관은 제주 좌측에 앉아 천천히 정중하게 읽는다. 축문은 제주가 읽어도 무관하다. 독축이 끝나면 참사자 모두 일어나서 재배하는데 초헌의 끝이다. 과거에는 독축 뒤에 곡을 했다.

6.아헌(亞獻)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주부가 올리는 것이 관례이나 주부가 올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의 다음가는 근친자인 남자가 초헌 때와 같은 순서에 따라 올리기도 한다. 이때 모사에는 술을 따르지 않는다. 주부는 네 번 절한다.

7.종헌(終獻)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아헌자 다음가는 근친자가 올리는 게 원칙이나 참가자 중 고인과의 정분을 고려하여 잔을 올리게 하기도 한다. 아헌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잔은 7부쯤 부어서 올린다.

8.첨작(添酌)

종헌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제주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으면 집사는 술 주전자를 들어 신위 앞의 술잔에 세 번 첨작하여 술잔을 가득 채운다. 집안에 따라서는 집사로부터 새로운 술잔에 술을 조금 따르게 한 다음 집사는 다시 이것을 받아, 신위 앞의 술잔에 세 번으로 나누어 첨작하는 때도 있다.

9.삽시정저(插匙正箸)

좌측부터 조부, 조모 순으로 메 그릇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밥 위의 중앙에 꽂는 의식이다. 이때 수저 바닥(안쪽)이 동쪽으로 가게 한다. 젓가락은 시접 위에 손잡이가 왼쪽을 보게 놓는다. 제주는 두 번, 주부는 네 번 절한다.

10.합문(闔門)

영위(靈位)께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의식이다. 참사자가 모두 잠시 밖으로 나가고 문을 닫고 몇 분 동안 조용히 기다린다. 대청마루에 제상을 차렸으면 뜰 아래로 내려가 읍(揖, 상견례 때 하는 절) 한 자세로 잠시 기다린다. 단칸방의 경우 제자리에 엎드려서 몇 분 동안 있다가 일어선다.

11.계문(啓門)

계문이란 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축관(祝官)이 세 번 헛기침을 한 후 방문을 열며 들어가면 참사자가 모두 뒤따라 들어간다.

12.헌다(獻茶)

헌다란 차를 올린다는 뜻이다. 갱(국그릇)을 내리고 숭늉을 올려 숟가락으로 메를 세 번 떠서 숭늉에 말고 수저를 숭늉 그릇에 놓는다. 이때 참사자 모두 읍한 자세로 잠시동안 꿇어앉아 있다가 제주의 기침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든다.

13.철시복반(撤匙復飯)

숭늉 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고 메 그릇의 뚜껑을 덮는 것을 말한다.

14.사신(辭神)

고인의 영혼을 전송하는 절차로써 참사자가 신위 앞에 두 번 절한 뒤 지방과 축문을 향로 위에서 불사른다. 지방은 축관이 모셔 내온다. 신주는 사당으로 모신다. 이로써 제사를 올리는 의식절차는 모두 끝난다.

15.철상(撤床)

제 상위의 모든 제수를 집사가 물리는데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다.

16.음복(飮福)

참사자가 한자리에 앉아 제수를 나누어 먹는데 이를 음복이라 한다. 음복을 끝내기 전에는 제복을 벗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제사 순서

내용

조상 모심 강신/ 降神

조상을 모심

(제주) 향을 피운다.

(집사) 제주에게 술을 따라준다.

(제주) 술을 모사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붓는다.

(제주) 두 번 절한다.

문안인사 참신/ 參神

조상에 대한 인사

(전원) 제사 참가자 모두 합동으로 두 번 절한다.

첫 잔 드림 초헌/ 初獻

(제주) 향을 피운다.

(집사) 남자 조상 잔을 제주에게 주고 술을 가득 부어준다.

(제주) 모사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붓는다.

(제주) 7부 정도 남은 술을 집사에게 준다.

(집사) 술잔을 밥과 국 사이에 놓고 젓가락을 음식 위에 놓는다.

(제주) 두 번 절한다.

축문 읽기 독축 / 讀祝

(전원) 모두 꿇어앉는다.

(제주) 축문을 읽는다.

(전원) 두 번 절한다.

둘째 잔 드림 아헌 / 亞獻

첫 잔 드림의 절차와 동일 (단, 모사그릇에 술 따르는 절차 생략한다.)

끝잔 드림 종헌 / 終獻

첫 잔 드림의 절차와 동일 (단, 모사그릇에 술 따르는 절차 생략. 술은 7부로 따른다.)

식사권유 유식 / 侑食

조상의 음식 드심

(제주) 술주전자를 들고 남자 조상의 잔과 여자 조상의 잔에 술을 가득 따른다.

(제주부인) 메(밥)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매 한가운데 꽂는다.

(제주부인) 젓가락은 손잡이가 서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제주/제주부인)같이 두 번 절한다.

예전에는 식사권유 후 조상께서 편히 식사하시라는 의미로 문밖에 나가 잠시 기다린 다음 숭늉을 올렸다. 요즘은 집 구조상 참 사자들이 잠시 무릎을 꿇고 대기한 후 숭늉을 올리기도 한다. 〈끝〉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 순위

미국 잡지 'US 뉴스 & 월드 리포트'가 세계 약 2만 1천명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국가로서의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가장 강한 국가 순위'를 발표했다. 이 잡지는 매년 '베스트 컨트리(최고 국가)'를 발표하고 있다.

순위	국가명	비고
1	미국	세계 최강
2	러시아	국토면적 세계 1위, 2위 캐나다의 2배
3	중국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국토 면적 세계 3위
4	독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를 가진 국가
5	영국	모든 분야에서 세계 각국에 영향력 발휘
6	프랑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개인 권리를 옹호한 국가 중 하나
7	일본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기술발전이 진행된 국가 중 하나
8	이스라엘	국토는 좁지만 국제 문제에서 중요한 위치 차지
9	대한민국	2019년 10위에서 1단계 상승
10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의 거인, 이슬람교의 중심
11	아랍 에미리트 연합(UAE)	근본적으로는 보수이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 보유
12	캐나다	이민자 수용에 관대
13	스위스	1815년 비엔나 의정서 채택 이후 200년 이상 영세중립국
14	인도	인구 세계 제2위, 세계 인구의 약 6분의 1이 집중
15	호주	하나의 대륙을 하나의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드문 케이스
16	터키	2019년 16위, 순위 변동 없음
17	이탈리아	연간 40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나라
18	카타르	석유와 천연가스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
19	스페인	2019년 23위에서 4단계 상승
20	스웨덴	2019년 21위에서 1단계 상승

도쿄신문, 일본어 배우는 권무일 작가 취재 보도

일본 도쿄신문이 78세에 제주도 역사 집필을 위해 제주 한라대 관광일어과에 입학하여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권무일 작가를 취재했다.

78세의 권무일씨는 일제 강점기인 1942년 서울 근교의 경기도 태생이다. 명문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을 거쳐 철강업체인 포스코 등에서 일했다.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풍부한 자연이나 본토와는 다른 역사, 문화에 매력을 느껴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살고 싶다'며 2004년 은퇴 후 제주를 무대로 한 소설과 역사서를 쓰기 시작했다.

제주도에는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 고대왕국인 탐라국이 존재했다. 일본서기에도 기술이 남아 있지만 한국에는 문헌이 적어 권 씨는 중국어를 독학으로 마스터하고 중국 자료를 주로 연구해 왔다. 앞으로는 일본 문헌도 참고하고 싶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관광일본어과 정예실 교수에게 상담했더니 권씨는 총명하고 호기심도 많으니 이제라도 늦지 않다며 입학을 권유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두 형이 일본으로 징병되고 작은 형은 전사했다. "왜 형이 죽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전쟁에 끌어들인 것은 일본일지라도 결국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큰 세계관에서 보면 한국도 일본도 동일한 문화권"이라며 과거사 문제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본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한다. 일본어 공부는, 한자는 읽을 수 있지만 "듣기가 제일 힘들다. 히라가나나 가타가나를 외워도 잊어버리는 것도 많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정 교수는 권씨에 대해 "열심히 배우는 모습은 젊은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대로 공부하면 일본어 문헌도 읽을 수 있게 된다"고 격려했다.

목표가 있다. 5년 전 시즈오카현에서 열린 국제포럼에 참가, 2200여 년 전 중국 진시황의 명으로 불로장수의 영약을 찾아 한국이나 일본을 찾았다는 서복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때는 한국어였다. "더 공부해서 다음에는 일본어로 발표하고 싶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은 관계가 좋지 않지만 역사적으로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많은 일본인과 깊은 교류를 하고 싶다."

산중 山中 / 이율곡

채약홀미로採藥忽迷路
약초 캐러 갔다가 갑작스레 길을 잃었네

천봉추엽리千峯秋葉裏
수천 봉우리 가을 단풍으로 물들었고

산승급수귀山僧汲水歸
산속 스님은 물을 길어 돌아가는데

임말다연기林末茶煙起
숲 끝에서 차 다리는 연기가 피어나네

근당(勤堂) 권태은(權泰殷)